

## 이벤트 소개

현재 효고현의 일부인 하리마는 옛날에 하리마국(播磨國), 반슈(播州)(뿌릴 파(播))는 ‘경작하는 나라’라는 뜻)라고 불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현재의 다카사고시 포함)에서는 가을 축제가 활발히 열렸으며, ‘야타이’라고 불리는 신여가 축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야타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무거운 것이 많고 그중에는 2톤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수백 명이 짊어지고 지역을 돌며 지역 신사 등 중요한 장소에 들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타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본(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로 일본에서는 양력 8월의 행사)이나 신정보다 가을 축제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다카사고의 가을 축제는 지역 사람들의 열정에 힘입어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